

대학생의 생활스타일과 주거의 선호성향

The life style and dwelling preferenc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임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Hikyung LIM
Faculty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life style and preference trend for dwelling for 450 university stud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ife style is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fashion and privacy, brand and social relationship, and family and domesticity. Women give priority to fashion and privacy as well as family and domesticity than men do. (2) Dwelling awareness is grouped into 3; one for pursuing the value of asset, another with the inclination to residential transition and the other for preferring a detached house. Women have a stronger inclination to the economical value of house and prefers to live in the big city than men do. (3) As a factor affecting the dwelling preference, men give priority to the exterior condition such as environment, but women do the interior condition like the size of house. Men and Women showed various preferences for housing style such as detached house, villa, apartment and commercial complex dwelling, which is accord with the present housing style.

Key Words : Life style, Dwelling awareness, Dwelling preference

I.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중심의 국가정책과 더불어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생활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의 증가, 도시의 인구집중 및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간소화, 산업화, 근대화 등에 의한 영향은 가정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원의 역할이나 관계도 변화시켰다. 또한 산업사회는 생산중심적인 사회를 소비중심적인 사회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욕구도 점차 다양화, 고도화, 세분화 되면서 소비생활도 이에 따라 변화되었다.

특히 서구사회의 물질주의에 대한 성향이 점점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물질주의에 대한 성향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까지 전 계층에 만연되어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나, 20세에서 25세 연령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미선, 1996).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세대는 물질주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198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세대로서 산업사회, 대중사회, 권위주의타파, 고학력, 남녀평등, 국제화, 고령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오면서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해가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인구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경제소비구조의 변화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가치관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스타일의 근대화와 더불어 서구적인 주거문화로서 아파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집합주택이라는 서구식주거문화로서 아파트는 1962년에 최초로 마포아파트가 등장한 이래 공급주도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근대적 도시주거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주택과는 달리 집합주택은 건축재료, 설비 등의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생활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추구와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거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Hikyung Lim
Tel: 062) 670-2280, Fax: 062) 670-2180
E-mail: hikyung@gwangju.ac.kr

반세기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형태별, 건설현황(단독주택이 4.3%, 다세대주택이 2.2%, 연립주택이 0.7%, 아파트가 92.7%, 건설교통부 200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도시나 지방소도시나 건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공급방식이 아파트에 편중되어지면서 소비자는 공급주도적인 시장에 잘 길들여져서 보편적인 선호만을 가지고서 주택을 선택할 때에는 개성보다는 나중에 적당히 잘 팔릴 수 있는 안정지형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 서구적, 물질주의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영향력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의 생활스타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의 주택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주거에 대한 선호성향을 알아봄으로써 주거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의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대학생의 생활스타일유형을 분류하고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대학생의 주거에 대한 의식과 선호성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스타일의 개념

생활스타일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관점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먼저 가정학사전(1990)에서는 “생활스타일은 생활의 방법 또는 생활을 영위해 가는 태도로서 일정한 유형이 있으며, 사회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사회적인 계층분화에 대응하여 계층적인 차이를 보이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학자 成瀬(1988)는 현대인의 생활스타일을 아메리카적 생활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징으로 첫째, 아메리카 독점자본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의 확립아래에서 형성된 소비생활양식으로서 특히, 석유나 자동차 등의 팔목할만한 20세기적인 내용의 생산적 기반에 입각해서 성립된 배경을 들고 있다. 둘째로는 모든 종류의 생활수단을 상품화하고 생활수단의 개인주

의적인 소유와 이용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서 이른바 중류계층의 생활모델과 생활이데올로기를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일반 대중의 지속적인 채무생활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운동으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운동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인의 생활양식 특징을 일컬어 橋本(1987)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이라고도 정의하였다.

Lazear(1963)는 생활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방법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나 특질에 관련된 것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문화, 가치관, 자원, 상징, 허용등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의 소산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학자 Weber(1986)는 새로운 계층기준으로서 지위그룹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재화의 소비양식, 직업, 교육과 양육이 패턴에 의해 형성되는 계층으로 생활기회,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관 중에 유사성이 있어서 이 그룹내에서는 특정한 생활방식을 공유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순희, 김현정, 2002 재인용).

한편, 吉野(1980)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시점으로서 현대의 생활양식을 인간소외의 상황 즉 자기소외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 주체성의 회복을 제안하였다. 정신분석학자 Adler(1969)는 개인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개인별 특성을 강조하여 과거생활양식에 대한 대처경험, 생활과제의 독자적 해결방법, 미래에 대한 목표 지향적 노력들 중에서 개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바와 같이 생활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사회, 가족, 개인을 중심으로 학자들마다 관점을 달리해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심과 접근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학문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으므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西山(1977)는 주거학의 입장에서 생활스타일을 생활의 방법, 또는 생활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덧붙여 成瀬(1988)도 생활스타일은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유형이 있으며 사회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회적인 계층분화에 대응해서 계층적인 차이를 보이는 계층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생활의식, 주거의식

생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정학사전(1990)에 의하면 인간을 주체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이라고 일컬으며, 그 외 생물의 경우에는 생존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차이점으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문화현상에서는 불합리한 점도 허용되어지며, 때로는 서로 모순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 같은 모든 현상들을 일컬어 문화현상으로서 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생활은 의·식·주·육아·가정경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일정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생활태도나 생활요구 등의 생활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의식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주거의식에 대한 정의로서는, 가정학사전(1990)에 따르면 주거(주환경에서부터 주거물품까지를 포함)에 관련되는 생활요구를 주요구라 말하고, 이 같은 주요구의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주거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활동을 주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주거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은 가족이 사용하고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생활행동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 혹은 가족과 더불어 식사, 수면, 단란, 접대 등의 다양한 생활행위가 주거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생활행위를 주생활이라고 일컬으며, 주생활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의식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생활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생활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서 일반적 대상과 특정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성연(1996)과 조형오(1996)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스타일로서 의생활요인, 식생활요인, 주생활요인, 소비생활요인, 문화생활요인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특정대상으로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생활스타일에 관한 연구(송백채, 1987; 고경순, 1992; 채정숙, 1998)와 노인(윤종선, 1994; 채진미, 1997; 이신숙, 1998; 문숙재·최혜경·정순희, 1999)이나 도시주부를 대상으로(이은경, 1997; 이승신, 1999; 임정빈·임혜경, 1988) 생활양식에 따른 소비자출구조를 분석하여 생활스타일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다.

고경순(199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스타일로서 적극적 인간관계, 자기신뢰, 자기중심, 가족지향책임의식, 경제생활 안정추구, 자기성취, 소속감 및 다양성추구, 사

회적 인정추구 등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생활스타일에 따라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생활스타일과 소비행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소비자의 생활스타일유형으로서 쇼핑지향, 외모지향, 고급여가지향, 사교적 활동지향, 혁신지향의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신혜봉·이금룡·임숙자, 2003).

이처럼 생활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보다는 특정 연령층을 표적 집단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생활에 관계되는 학문분야에서 소비행태와 구매유형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주택분야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생활스타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영주·이영호, 1998; 조명은, 1999; 남혜정, 2000; 박재현, 2001; 조인숙·신화경, 2004).

4. 주거선호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인간이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하나는 피난처로서 거주본능의 충족을 위한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보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산의 투자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고가라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은 병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윤충현, 1986). 따라서 주택을 선택할 경우에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체인 단위주택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과 교통망, 근린시설, 공공재, 쾌적성 등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다(조인숙·신화경, 2004).

주거선호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택을 선택하는 요인으로서 양진원(1990)은 쾌적성, 공공시설, 안전성, 교육환경을 고려요인으로 보았다. 조은정(1994)은 주택소비자의 주거선호요인으로서 외부환경, 안전과 프라이버시, 내부기능과 심미성, 위신과 경제성 등 4가지로 보았다. 신소영(1997)은 주생활양식과 관련하여 장식성, 과시성, 자기취향, 실용성, 재산증식, 위계질서의 6개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라이프스타일로 살펴본 주거선호의 선행연구로서 조인숙·신화경(2004)은 주거선호요인을 경제적 특성, 주거편의시설, 주택의 디자인적 특성, 단지의 물리적 특성, 부모(자녀)와의 거리, 주택의 방위와 층수, 단지의 사회환경적 특성, 직장학교와의 거리 등의 8 요인으로 나누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선호성향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윤재웅·신혜정(1997)은 입지·환경적요인, 사

회·심리적요인, 주택·물리적요인, 생활·의식적요인, 경제적요인 등 5가지요인으로 나누어 주거가치관을 분류하고 있다. 외국의 대학생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거선호를 분석한 선행연구(정미란·안옥희, 2001)에서는 학군, 가족의 사회적 지위표현, 교통, 실내디자인, 주변 환경, 친구친척과의 거리, 내부시설, 안전성 등을 주거선택시의 고려사항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특히 우리나라의 여대생은 50.5%가 일본의 여대생은 3.1%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에 대한 가치관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생활스타일과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지역 거주 남녀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9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確田(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일상생활이나 여가를 보내는 생활방식에 관한 11문항, 주택에 관한 의견 11문항, 생활의식에 관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0.0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구성은 남자가 41.2%, 여자가 58.8%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부의 경우 52.3세(SD:5.64) 이고 모의 경우 48.9세(SD:5.67)이며, 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업(21.3%), 서비스·판매직(18.1%), 전문직(7.2%) 등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전체의 39.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나, 한편으로 200만원미만의 경우도 26.3%를 차지하였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7.8%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5%(노동부,1997)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모의 직업으로는 서비스·판매직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업(31.9%), 사무관리직(8.8%), 전문직(4.4%), 기타(14.3%)로 나타났다. 주거에 관련된 사항으로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75.5%, 전세가 15.6%이며,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52.0%, 아파트가 44.4%로 나타났다. 주거경험으로는 한옥 16.0%와 양옥 17.0%에 비하여 아파트가 45.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연립주택 20.6%를 포함하면 집합주택 거주경험의 조사대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항목	N(%)	변인	항목	N(%)
성별	남	162(41.2)	모직업 유무	겸업주부	182(47.8)
	여	231(58.8)		전업주부	199(52.2)
	계	393(100)		계	381(100)
월소득	200만원 미만	99(26.3)	소유형태	자가	296(75.5)
	200 - 300만원	148(39.4)		전세	61(15.6)
	300 - 400만원	77(20.5)		임대	21(5.4)
	400만원 이상	52(13.8)		기타	14(3.6)
	계	376(100)		계	392(100)
부의 직업	전문직	27(7.2)	주택유형	단독주택	204(52.0)
	사무관리직	114(30.4)		아파트	174(44.4)
	판매·서비스	68(18.1)		기타	14(3.6)
	농·수산업	80(21.3)	계	392(100)	
	운수업	24(6.4)	주거경험	한옥	63(16.0)
	기타	62(16.5)		양옥	67(17.0)
	계	375(100)		연립주택	81(20.6)
		아파트		181(45.9)	
		기타	2(0.5)		
		계	394(100)		

(무응답을 제외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합에 차이가 있음)

2. 대학생의 생활스타일

1) 대학생의 생활의식의 요인분석

조사대상자의 생활의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3점으로 측정된 생활의식관련 9개문항을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보수적인 의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61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35이고 전체변량은 15.0%이었다. 요인 2는 현실적인 의식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69이상으로 2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34이고 전체변량은 14.9%이었다. 요인 3은 현대적

인 의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74이상이고 2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32이고 전체변량은 14.7% 이었다. 요인 4는 감각적인 의식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68이상으로 2문항이 포함되었고, 고유치는 1.29이며 전체변량은 14.3%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대학생의 생활의식분산의 59.1%를 설명해주고 있다.

2) 생활의식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생활의식에 있어서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에

<표 2> 생활의식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1 (보수적)	요인2 (현실적)	요인3 (현대적)	요인4 (감각적)	신뢰 계수
전통문화로서 설, 추석 등의 명절이나 제사를 지켜야 한다	.674	-.077	-.093	-.163	.66
생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기면 금방 쓰기보다는 저축한다	.644	-.074	-.184	-.051	
결혼후의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를 원한다	.615	-.298	.113	.289	
미래를 대비하여 무언가 도움이 되는 자격을 갖추고 싶다	.130	.817	.161	-.100	.76
집안일은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해야한다	-.147	.694	-.001	.373	
안전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	.107	-.034	.789	-.010	.74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 등의 현대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	-.134	.109	.744	.167	
주변의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	-.108	-.111	.258	.736	.63
어렵고 책임감 있는 업무보다 가볍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	.164	.263	-.044	.681	
고유치	1.354	1.344	1.326	1.295	
분산율	15.0	14.9	14.7	14.3	

<표 3> 관련 변인에 따른 생활의식 유형의 차이

변수	집단	보수적			현실적			현대적			감각적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	2.5	.66		2.2	.66		2.1	.67		2.1	.52	
	녀	2.0	.79		2.4	.66		2.2	.67		2.2	.53	
	t값	6.42***			2.31**			.94			.64		
월소득	200만원 미만	2.4	.72		2.3	.64		2.1	.69	A	2.1	.53	A
	200 - 300만원	2.1	.75		2.2	.68		2.1	.70	A	2.1	.51	AB
	300 - 400만원	2.2	.81		2.5	.62		2.3	.63	B	2.3	.53	AB
	400만원 이상	2.2	.81		2.4	.64		2.3	.64	B	2.2	.50	B
	F값	2.12			2.61*			3.26*			3.39**		
부의직업	전문직	2.4	.79		2.4	.69		2.1	.75		2.1	.47	A
	사무직	2.2	.77		2.4	.58		2.2	.65		2.2	.47	AB
	서비스·판매직	2.1	.80		2.3	.67		2.2	.68		2.0	.56	AB
	농수산업	2.3	.72		2.3	.67		2.1	.60		2.1	.50	AB
	기타	2.2	.80		2.3	.74		2.1	.72		2.3	.55	B
	F값	1.06			.85			.37			2.29		
주거경험	한옥	2.4	.68	A	2.3	.65		2.1	.61	A	2.1	.47	A
	양옥	2.2	.82	AB	2.4	.67		2.0	.71	AB	2.1	.55	AB
	연립주택	2.3	.72	B	2.3	.64		2.3	.73	AB	2.3	.56	AB
	아파트	2.1	.80	B	2.3	.69		2.2	.65	B	2.2	.50	B
	F값	3.95**			.16			2.46*			1.85		

3점 Likert scale 1점: 그렇지 않다 3점: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 multiple Range test 결과 A, B, C 문자 사이에 P < .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여학생보다 현실적인 의식은 낮은 반면에 보수적인 의식에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특히 현실적인 의식에서 평균이 높았으나, 현대적, 감각적인 의식에 있어서도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형오(1996)의 연구에서도 보수적 유형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감각지향적 자유분방형은 여성층의 비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월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식에 대한 평균은 낮은 반면에 현실적, 현대적, 감각적인 의식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성혜경·임정빈(1994)의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현대적향유형에 높은 비율로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거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옥에서의 주거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의식에 대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현대적 의식과 감각적인 의식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의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주거경험에 따른 차이가 생활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이 추측되어진다.

3) 대학생의 생활스타일의 요인분석

대학생의 생활스타일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3점으로 측정된 생활스타일관련 11개문항을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0이상

인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4>. 요인 1은 방과 후의 생활과 신상품 중시, 패션등 유행과 개인적인 생활에 관련된 문항들로 유행·개인생활형이라 하였다. 요인 2는 백화점 이용과 친구, 유명 메이커 중시 등 브랜드와 사교에 관련된 문항들로 브랜드·친구사교형이라 하였다. 요인 3은 가족중시와 가사일 돕기 등 가정과 관련된 문항들로 가족·가정생활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요인별로 고유치와 요인부하량, 전체변량을 살펴보면, 요인 1은 고유치가 1.89, 요인부하량은 0.52이상이고 전체변량은 17.24%이다. 요인 2는 고유치가 1.71, 요인부하량은 0.55이상이고 전체변량은 15.55%이다. 요인 3은 고유치가 1.50, 요인부하량은 0.57이상이고 전체변량은 13.65%이다.

4) 생활스타일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생활스타일의 유형별로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5>, 먼저 월소득에 따라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유행·개인적인 생활과 브랜드·친구사교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조건이 생활스타일 형성에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성혜경·임정빈, 1994) 소득과 학력이 높은 주부가 현대적향유형, 유행추구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생활스타일의 관련성에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의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의 경우에는 유행, 개인생활과 브랜드, 친구사교에 대한 평균이 비교적 높았으며, 농수산업의 경우에는 가족,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요인의 평균값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경험에 있어서는

<표 4> 생활스타일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1 (유행·개인생활)	요인2 (브랜드·친구사교)	요인3 (가족·가정생활)	신뢰 계수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시내에 자주 놀러간다	.715	.106	-.096	.67
새로 나온 신상품(화장품이나 일상용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684	.183	-.070	
아침식사는 빵을 선호하는 편이다	.570	-.026	.027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패션스타일이 있다	.523	.275	-.008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장소로서 백화점을 자주 이용한다	.306	.682	.099	.64
한달에 두 세 번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한다	-.206	.659	-.326	
옷이나 신발 등은 주로 유명메이커 제품을 이용한다	.356	.611	.048	
잠자리는 침대가 편하다고 생각한다	.109	.551	.217	
휴일은 주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122	-.039	.731	.62
휴일에는 외출하기 보다는 집에서 여유롭게 쉬는 경우가 많다	-.152	-.043	.684	
집에서는 요리나 세탁 등의 가사일을 돕는 편이다		-.094	.566	
고유치	1.897	1.711	1.502	
분산율	17.2	15.6	13.7	

〈표 5〉 생활 스타일 유형의 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

변수	집단	유행 · 개인생활			브랜드 · 친구사교			가족 · 가정생활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	1.9	.58		2.3	.71		2.3	.64	
	여	2.0	.56		2.3	.75		2.4	.64	
	t값	1.78			.78			1.15		
월소득	200만원 미만	1.8	.58	A	2.0	.75	A	2.4	.63	
	200 - 300만원	2.0	.55	AB	2.3	.70	B	2.3	.61	
	300 - 400만원	2.1	.51	BC	2.6	.60	BC	2.4	.67	
	400만원 이상	2.2	.57	C	2.5	.67	C	2.4	.63	
	F값	5.91***			13.09***			.11		
부의 직업	전문직	2.0	.71		2.1	.75	A	2.3	.67	
	사무직	2.1	.51		2.5	.67	A	2.3	.62	
	서비스, 판매직	2.0	.60		2.3	.72	AB	2.3	.63	
	농수산업	1.9	.50		2.1	.73	B	2.5	.62	
	기타	2.0	.61		2.4	.76	B	2.4	.66	
	F값	1.37			4.07**			1.16		
주거경향	한옥	1.9	.58		2.2	.73		2.3	.60	
	양옥	1.9	.55		2.2	.77		2.4	.63	
	연립주택	2.0	.59		2.3	.74		2.4	.63	
	아파트	1.9	.57		2.4	.71		2.3	.65	
	F값	.37			1.52			.55		

3점 Likert scale 1점: 그렇지 않다 3점: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 multiple Rarge test 결과 A, B, C 문자 사이에 P < .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결혼관 및 직업관

대학생의 생활의식에 관한 요소로서 결혼과 직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표 6〉, 먼저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아이를 기르고 가족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60.4%, 「결혼은 아이보다 부부의 생활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의 의견이 31.5%, 「결혼하지 않고서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가 8.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가족중심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p<.01), 앞에서 살펴본 생활의식의 유형에서 보수적인 의식이 강한 남학생이 결혼에 대한 의견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중심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은 부부중심과 독신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생활의식의 유형별로 결혼관을 살펴보면, 보수적인 의식과 현실적인 의식유형에서는 가족중심과 부부중심의 의견에 대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독신에 대한 의견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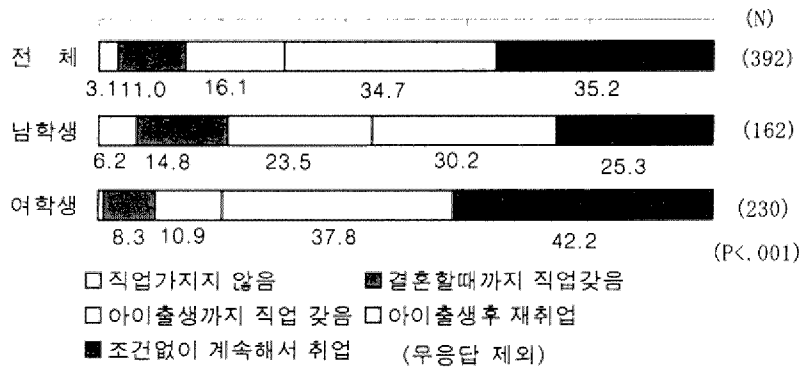
대적인 의식유형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생활의식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그림 1], 「여성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가 3.1%, 「여성은 결혼할 때까지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가 11.0%, 「여성은 아이 출생까지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가 16.1%, 「여성은 아이가 출생하면 잠시 쉬었다가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가 34.7%, 「여성도 가능한 그만두지 말고 계속취업을 해야 한다」가 35.2%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p<.001),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을 한시적으로 보는 의견이 높은 반면에 계속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은 낮게 나타나 결혼이나 육아 등을 조건으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이 출생 후에 재취업에 대한 의견이 37.8%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 주기(life-cycle)와 관련하여 결혼이나 임신, 출산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초기 양육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소위 M자형 취업을 곡선형태(노동부,1998)의 배경이 되는 의식이 대학생층에서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결혼에 대한 의견

변수	집단	가족 중심	부부 중심	독신	χ ² , F값
	전체	391(100)	236(60.4)	123(31.5)	
성별 N(%)	남 161(100)	108(67.1)	47(29.2)	6(3.7)	
	여 230(100)	128(55.7)	76(33.0)	26(11.3)	
생활의식 유형 M(SD)	보수적	2.2 (.76)	2.2 (.77)	1.9 (.88)	1.95
	현실적	2.3 (.67)	2.4 (.60)	2.3 (.74)	.25
	현대적	2.0 (.67)	2.3 (.65)	2.5 (.57)	9.73***
	감각적	2.1 (.52)	2.2 (.53)	2.1 (.35)	.76

* P < .05 ** P < 0.1 *** P < .001 (무응답은 제외시켰음)



(그림 1)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 -성별-

3. 주거에 대한 의식과 선호성향

1) 대학생의 주거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대학생의 경우, 서구적인 현대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적인 혜택을 풍부하게 받고 자라온 신세대로서 주거에 대한 가치관도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어짐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3점으로 측정된 주택관련 11개문항을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0이상인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7>. 요인 1은 주택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와 소유의식에 관련된 문항들로 자산가치추구형이라고 하였다. 요인 2는 정주보다는 대도시중심의 거주지 선호와 주택에 대한 거주의식에 관련된 문항들로 거주변화지향형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단독주택선호와 뜰, 정원에 관련된 문항들로 단독주택선호형이라고 하였다.

각각의 요인별로 고유치와 요인부하량, 전체변량을 살펴보면 먼저 요인 1은 고유치가 1.88이며 요인부하량은 0.48이상이고 전체변량은 17.17%이다. 요인 2는 고유치가 1.86, 요인부하량은 0.49이상이며 전체변량은 16.93%이다. 요인 3은 고유치가 1.62, 요인부하량이 0.73이상이고 전체변량은 14.73%이다.

2) 주거의식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주거에 대한 의식유형으로서 위에서 얻어진 3개의 인자에 대해 관련변인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에 따라서는 주택에 대한 자산가치 추구하고 거주지의 변화 지향에 대한 인자 평균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 주택의 경제적 가치와 대도시 거주지 선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거의식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1 (자산가치추구)	요인2 (거주변화지향)	요인3 (단독주택선호)	신뢰 계수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에 사는 것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691	.055	-.150	.78
여유가 있다면 작은 평수보다는 넓은 집을 사두는 것이 좋다	.671	.099	.145	
반드시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	.488	.090	.427	
집은 내 마음에 맞게 주문해서 짓고 싶다	.487	.195	.404	
한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075	.668	.019	.77
집은 생활에 맞게 옮겨가면서 사는 것이 좋다	-.054	.634	.096	
지금 살고 있는 고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	.249	.607	.123	
시골이나 지방도시보다는 넓은 대도시에서 살고 싶다	.409	.587	-.214	
집을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453	.491	-.031	
불편하더라도 아파트보다 개성있는 단독주택이 좋다	-.129	.010	.787	.72
집에는 반드시 뜰이나 정원이 있어야 한다	.158	.017	.734	
고유치	1.888	1.863	1.620	
·분산율	17.2	16.9	14.7	

〈표 8〉 주거의식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변수	집단	자산가치 추구			거주변화 지향			단독주택 선호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	2.0	.77		2.0	.63		1.9	.77	
	녀	2.2	.77		2.1	.63		1.7	.76	
	t값	1.51			.95			2.56*		
부직업	전문직	1.9	.78	A	2.1	.62	A	2.0	.88	A
	사무관리직	2.4	.73	AB	2.1	.63	AB	1.9	.78	AB
	판매서비스직	2.2	.73	BC	2.0	.69	AB	1.8	.75	AB
	농수산업	1.8	.74	BC	1.8	.63	B	1.6	.69	AB
	기타	2.1	.81	C	2.2	.62	B	1.9	.80	B
	F값	6.99***			3.23**			2.21		
월소득	200만원 미만	1.8	.77	A	1.9	.61	A	1.8	.80	
	200 - 300만원	2.1	.78	B	2.0	.64	A	1.9	.79	
	300 - 400만원	2.4	.67	C	2.2	.60	B	1.8	.75	
	400만원 이상	2.4	.68	C	2.2	.67	B	1.9	.75	
	F값	9.68***			6.59**			.18		
가족구성	부모와미혼자녀	2.1	.78	A	2.1	.65	A	1.8	.78	A
	삼세대	2.1	.74	B	2.0	.65	AB	2.0	.78	AB
	기타	1.7	.70	B	1.8	.51	B	1.6	.65	B
	F값	4.14**			3.55*			1.95		
주거경험	한옥	2.0	.65		2.0	.75		1.8	.79	A
	양옥	2.0	.77		2.0	.66		1.6	.71	A
	연립주택	2.1	.84		2.1	.61		2.0	.77	A
	아파트	2.2	.78		2.1	.63		1.8	.77	B
	F값	2.15			.32			3.69**		
현주택 유형	임대아파트	1.9	.80	A	2.1	.68		1.9	.83	A
	자가아파트	2.4	.74	A	2.2	.66		1.9	.79	AB
	임대단독주택	1.9	.76	A	2.0	.59		1.7	.81	AB
	자가단독주택	2.0	.73	A	1.9	.63		1.8	.72	B
	기타	1.6	.63	B	2.0	.55		1.5	.76	B
	F값	8.44***			2.51*			1.68		

3점 Likert Scale 1점: 그렇지 않다 3점: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D: Dumcan multiple Range test 결과 A, B, C 문자 사이에 P < .05의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한편, 남학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선호에 대한 인자평균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자산가치추구인자와 거주변화지향인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무관리직의 경우가 주택의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인자평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과 사무관리직인 경우에는 현재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거주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인자의 평균이 높았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에서는 거주지의 변화를 지향하는 인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단독주택선호 인자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삼세대동거가족 형태에서는 단독주택선호 인자의 평균이 높은 반면에 주거변화에 대한 인자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성과 주거의식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주택의 자산가치와 거주변화를 지향하는 인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주거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대학생들의 주거선호 성향

① 주거지와 거주조건

미래 주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거지, 거주조건, 주택유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거지로는 대도시의 조용한 교외지역이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새로이 조성된 신주택지구가 23.1%를 차지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유리한 환경조건의 도시외곽지역을 대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소도시가 17.5%, 대도시의 시내중심지역이 8.1%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가장 중시하는 거주조건으로는 환경(42.5%), 교통조건(22.6%), 내부구조(16.0%), 집의 크기(13.5%), 학군(5.3%)으로 나타났다<표 9>.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p<.01), 남학생은 환경과 교통조건을 중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학생은 집의 크기와 내부구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남학생은 주거의 외적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여학생은 주생활과 관련된 내부의 실리적이며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하여 남녀에 따른 주거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른 거주조건을 살펴보면(p<.05), 아파트거주자의 경우에는 집의 크기와 교통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중시하는 것에 비해 단독주택거주자의 경우는 환경과 내부구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의식의 유형에 따라 거주조건을 살펴보면<표 10>, 자산가치추구 유형의 경우에는 집의 크기와 내부구조, 교통조건에서 인자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집의 크기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산가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이 추측되어 진다. 또한 거주변화지향의 유형에서도 집의 크기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집의 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독주택 선호 유형에서는 학군과 내부구조가 차지하는

평균이 높게 나타나 주거의식의 요인별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② 주택유형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의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60.3%, 빌라가 20.3%, 일반아파트가 8.1%, 주상복합아파트가 10.4%를 차지하였다.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11>, 월수입에 따라서는(p<.05), 수입이 적은 계층에서 단독주택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상복합아파트의 선호비율은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소득에 따른 주택의 가치의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의 주거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p<.05), 한옥과 양옥에서의 주거경험자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옥에서의 주거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일반아파트(7.5%)나 빌라(10.4%)의 선호는 낮은 반면에 단독주택 선호율이 80.6%로 매우 높았다. 한편, 연립주택과 아파트 거주경험자는 단독주택 선호 비율은 낮은 반면에 빌라와 주상복합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주거경험과 선호하는 주택형태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주택의 소비자인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

<표 9> 성별, 주택형태별로 살펴본 거주조건

변수	집단							X ²
	전체	집의 크기	내부 구조	교통 조건	학군	환경		
성별	남	393(100)	53(13.5)	63(16.0)	89(22.6)	21(5.3)	167(42.5)	16.829**
	여	162(100)	16(9.9)	15(9.3)	42(25.9)	13(8.0)	76(46.9)	
현 주택유형	아파트	231(100)	37(16.0)	48(20.8)	47(20.3)	8(3.5)	91(39.4)	15.852*
	단독주택	174(100)	34(19.5)	23(13.2)	44(25.3)	7(4.0)	66(37.9)	
	기타	204(100)	18(8.8)	37(18.1)	42(20.6)	12(5.9)	95(46.6)	
	기타	14(100)	1(7.1)	3(21.4)	2(14.3)	2(14.3)	6(42.9)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N(%) (무응답은 제외시켰음)

<표 10> 거주조건과 주거의식유형

변인	항목	자산가치추구			거주변화지향			단독주택선호		
		M	SD	D	M	SD	D	M	SD	D
거주 조건	집의 크기	2.4	.75	B	2.4	.65	B	1.8	.77	A
	내부구조	2.2	.74	AB	2.0	.67	A	1.9	.81	A
	교통조건	2.2	.77	AB	2.1	.65	A	1.8	.75	A
	학군	2.0	.77	A	2.0	.50	A	2.3	.80	B
	환경	1.9	.76	A	2.0	.63	A	1.8	.75	A
	F값	4.90***			4.04**			2.94*		

* P < .05 ** P < .01 *** P < .001

D: Dumcan multiple Range test 결과 A, B, C 문자 사이에 P < .05의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표 11〉 선호하는 주택형태

변수	집단	N(%)	단독주택	빌라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기타	χ^2 (F값)
	전체	392(100)	236(60.2)	80(20.4)	32(8.2)	41(10.5)	3(0.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99(100)	69(69.7)	18(18.2)	4(4.0)	7(7.1)	1(1.0)	20.800*
	200 - 300만원	148(100)	85(57.4)	32(21.6)	19(12.8)	12(8.1)	-	
	300 - 400만원	77(100)	43(55.8)	20(26.0)	5(6.5)	8(10.4)	1(1.3)	
	400만원 이상	52(100)	30(8.0)	7(13.5)	4(7.7)	11(21.2)	-	
거주 경험	한옥	63(100)	41(65.1)	10(15.9)	6(9.5)	5(7.9)	1(1.6)	21.015*
	양옥	67(100)	54(80.6)	7(10.4)	1(1.5)	5(7.5)	-	
	연립주택	81(100)	45(55.6)	21(25.9)	6(7.4)	9(11.1)	-	
	아파트	181(100)	96(53.0)	42(23.2)	19(10.5)	22(12.2)	2(1.1)	
선호 거주지	시내중심지	32(100)	9(28.1)	10(31.3)	7(21.9)	6(18.8)	-	70.878***
	교외지역	199(100)	113(56.8)	47(23.6)	17(8.5)	20(10.1)	2(1.0)	
	신주택지구	90(100)	63(70.0)	13(14.4)	5(5.6)	9(10.0)	-	
	소도시	69(100)	50(72.5)	10(14.5)	3(4.3)	6(8.7)	-	
	기타	3(100)	2(66.7)	-	-	-	1(33.3)	
현재 주택	단독주택	204(100)	152(74.5)	29(14.2)	8(3.9)	13(6.4)	1(0.6)	38.873***
	아파트	174(100)	77(44.3)	48(27.6)	23(13.2)	25(14.4)	2(1.0)	
	기타	14(100)	8(57.1)	3(21.4)	1(7.1)	2(14.3)	-	

* P < .05 ** P < .01 *** P < .001 (무응답은 제외시켰음)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호하는 주택유형과 주거지와의 관계로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신주택지구와 소도시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일반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내중심지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빌라의 경우에는 교외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주택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현재의 주택유형별로 선호하는 주택을 살펴본 결과(p<.001),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빌라나 일반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단독주택 선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아파트거주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거주하는 주택과 선호하는 주택이 일치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주택의 대부분이 공급주도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편중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거주선호를 고려하여 주택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

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의 생활스타일의 특성과 주거에 대한 선호성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미래주택계획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의식에 대한 요인은 보수적, 현실적, 현대적, 감각적인 요인의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남학생은 보수적인 의식이 여학생은 특히 현실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생활스타일로서는 유행·개인생활중시, 브랜드·친구사교중시, 가족·가정생활중시 요인의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과 개인적인 생활을 중시하면서도 가족과 가정생활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주거의식 요인으로는 자산가치추구, 거주변화지향, 단독주택선호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관련변인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주택의 경제적 가치와 대도시 거주 선호의식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주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더불어 여자 대학생의 주택소비문화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의 자산가치와 거주변화의 지향의식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강하게 나타나, 주택시장의 현실성이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셋째, 대학생의 미래 주거에 대한 선호 성향을 살펴본 결과, 주거지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유리한 환경조건의 도시 교외지역과 신주택지구를 대다수가 선호하였다. 주거선택시의 조건으로서는 남학생은 환경과 같은 외적요인

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여학생은 주생활과 관련된 내부의 실리적이며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하여 남녀에 따른 주거성향의 차이를 보였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빌라, 일반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생활의식과 생활스타일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로서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의식이 높게 나타난 여학생이 주택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는 시내중심보다 환경조건이 유리한 도시의 교외지역이나 신주택지구를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주거가치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자산가치뿐만이 아니라 내부구조나 주택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앞으로의 주택 소비자의 선택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주택선택 관련연구에 있어서 주거가치에 대한 욕구와 구매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자로 한정하여 일반적인 생활스타일과 주거성향을 규명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주거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폭 넓은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스타일과 주거가치관형성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생활스타일, 주거의식, 주거선호

참 고 문 헌

- 조형오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 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2), 223-242.
- 이영주, 이영호 (199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택행동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6), 47-57.
- 조명은 (1999). 공동주택계획을 위한 신세대 생활양식과 주거선호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혜정 (2000). 노년기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실버타운 주거단위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 (200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목적지 개발을 위한 제안.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충현 (1986).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진원 (1990). 대도시 주거근린환경에 대한 주민의식과 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1994).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순희, 김현정(2002).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문화연구, 5(2), 107-128.
- 조인숙, 신화경(2004). 세대간 라이프스타일과 주택선택시 고려요인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55-164.
- 신소영 (1997). 도시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에 관한 연구 - 거주자 지속성 및 주거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8(2), 37-47.
- 김한수, 임준홍, 이수상 (1998). 도심주거지에서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선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1), 99-107.
- 윤재웅, 신혜정 (1997). 대구지역 거주 대학생의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131-139.
- 정미란, 안옥희 (2001). 한일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63-171.
- 碓田智子, 住田昌二, 金岡トモコ (1990). 若年層の住宅像に關する研究. 日本家政學會誌, 41(1), 51-61.
- 吉野正治 (1990). 生活樣式の理論. 光生館.
- 日本家政學會 (1991). 家政學事典. 朝倉書店.

(2005. 05. 26 접수; 2005. 12. 07 채택)